



새롭게 변화하는 학교 소식 이모저모

(11, 12월)

2024. 12. 31.

펴낸곳 : 은빛초등학교

★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합동 소방 훈련-

2024년 11월 4일(월)에는 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학기마다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해와서 학생들에게도 익숙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화재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전체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담임 선생님 인솔에 따라 학생들은 교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도 질서를 지켰기에 전교생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운동장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유독 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기억한 학생들이 훈련 중에도 스스로 코와 입을 가리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모습을 보니 반복된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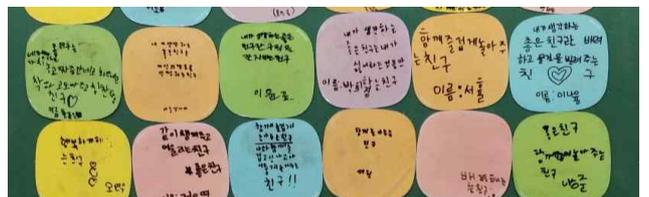
각 교실에서는 대피 동선과 대피할 때 주의할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하였고, 소화기 사용법과 119 신고 요령까지 익히며 합동 소방 훈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건조한 가을이 되어 화재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커진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 난 네가 좋아, 너와 나의 마음속에 핀 우정이란 아름다운 꽃

-친구 사랑 교육 주간-

2학기가 되어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져서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편해졌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잘 표현하진 않았나 되 돌아보게 됩니다. 11월 4일(월)부터 11월 8일(금)까지 일주일간 2학기 친구 사랑 교육 주관을 운영하며 은빛초 학생들이 서로에게 다 말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아쉬움이 없도록 표현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자리 친구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은 기쁜 마음을 담아서 나의 뒷자리 친구에게 다시 칭찬해주며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칭찬을 주고받는 '별의별 칭찬 릴레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여 적은 후 칠판에 모아 붙이고 다 같이 읽어본 후 그 모습을 존중 쿠키 인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사이를 지켜주는 마음이 오래 가기를 기대합니다.



★ 공감과 소통으로 학교 폭력 ZERO

-학교 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

2024년 11월 5일(화) 아침은 추운 날씨였지만 은빛초 등굣길은 훈훈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경찰서, 은빛초 교육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캠페인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교 학부모회 회원과 학생자치회 5~6학년 학생들은 홍보 피켓을 들고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 의회, 시흥경찰서에서는 홍보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이음 밴드'를 사용할 때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사이버 범죄 out' 볼펜으로 글을 쓰며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학교폭력 stop' 형광펜으로는 폭력의 얼룩이 아닌 공감과 화해의 색깔을 칠해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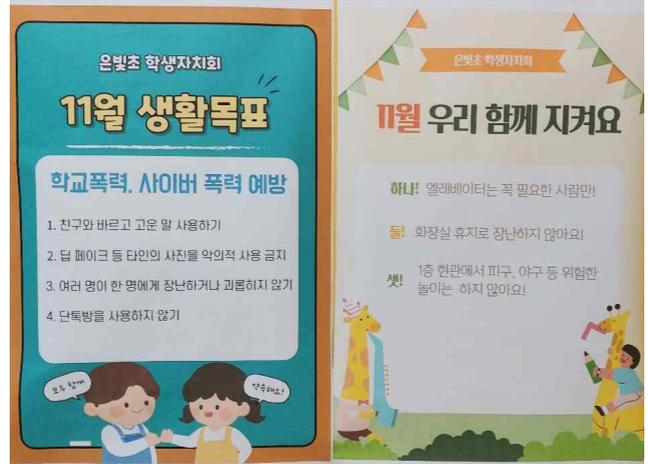
따뜻한 웃음이 넘치는 은빛초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합시다.



★ 11월 생활 목표를 지켜요

-전교 어린이회 학생자치회의-

2024년 11월 5일(화) 전교 어린이회 임원들이 학생 자치 회의에 참여하여 모두가 행복한 은빛초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11월 생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은빛 교육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갑니다.



★ 나도 시인이 될래요

-글빛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행사-

2024년 11월 18일(월)에 본교 글빛도서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5~6학년 학생들 25명이 참석하여 김미혜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작가님께 동시를 쓰는 마음과 방법을 배운 후 학생들도 시인이 되어 동시를 쓰고 작가님과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쓴 동시 작품에 작가님의 사인을 받으며 시인의 꿈을 품게 되었고, 설레는 순간도 마음 한편에 써넣었습니다.



★ 페스티벌 in 은빛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발표회-

2024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각 학급에서는 '페스티벌 in 은빛'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고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교실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자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끝까지 해내었습니다. 노래 부르기, 춤, 악기 연주, 태권도, 마술, 줄넘기, 큐브 맞추기, 단체 합창, 동화 구연, 직접 지은 이야기책 읽어주기, 등 아주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림, 조각, 모형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으니 새로운 도전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득 차올라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 눈이 내려 은빛으로 반짝이는 우리 학교



★ 사계절의 끝, 겨울을 느끼며

-2학년 시흥의 사계 (겨울) 활동-

12월 첫 주에는 2학년 학교 안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인 '시흥의 사계' 마지막 시간 '겨울'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시흥에서 볼 수 있는 철새들에 대해서 배우고, 은행 열매를 귀엽게 꾸민 후 알까지, 던져 넣기 등 여러 놀이를 하였습니다.

일 년 동안 네 번의 '시흥의 사계'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 자연환경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우리 고장 시흥의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

2025학년도 은빛초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회장 후보에 9명, 부회장 후보에 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 학생들은 각자 공약을 세우고 2024년 12월 16일(월)부터 12월 19일(목)까지 열띤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12월 20일(금)에 3~5학년을 대상으로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를 하였고, 그 결과 5학년 6반 김단우 학생이 전교 어린이회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부회장으로는 5학년 9반 정준영 학생과 4학년 1반 이수아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전교 회장과 부회장 학생들은 믿고 뽑아주어서 고맙고, 은빛초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당선이 되지 못한 다른 후보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선거 유세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희망도 품었습니다. 또한 직접 투표하여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체험하였습니다. 학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임원들과 힘을 모아 함께 행복한 은빛초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2024년을 보내며

-은빛초 및 병설유치원 졸업식 및 종업식-

어느새 한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올해에는 12월 마지막 날에 졸업식과 종업식을 하게 되어서 끝을 맺는 느낌도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3월 초에 새학기를 시작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12월 27일(금)에는 은빛초 병설유치원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장 고학년인 7세 반원생들은 이제 다시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12월 31일(화)에는 본교 종업식 및 6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급에서는 종업식을 하며 한 해의 배움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인사를 나누며 겨울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은빛나래관 강당에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모여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며 졸업을 축하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보고 졸업장을 받았더니 비로소 졸업하게 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 친해지고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워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순간을 기억에 새깁니다. 당장은 섭섭한 마음이 크지만 새로운 만남과 배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꿈이 빛나고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은빛초 및 병설유치원 학생들 모두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행복함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 방학을 보내고 새 학기에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